
- 제2기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 제1차 회의결과

「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 4. 28.(수) 15:00~16:30 / 시청 중회의실(B1층)
- (참 석 자) 분과위원(12), 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 (주요내용)
 -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요정책 보고(사회적경제과)
 - 2기 사회적경제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선출
 - 2기 사회적경제분과 운영방향 보고(일자리경제과) 및 의제 발굴 논의

□ 주요 논의내용

< 이○○ 위원 >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콘텐츠에 대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등 초기 지원 필요
 - ☞ ① 기존사업을 심화·고도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은 가능하나, 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기획하는 것은 기업의 몫, 처음부터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건 어려움이 있음
 - ②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민. 사회적기업 진흥원과 지속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공유할 계획(송○○ 위원)

< 조○○ 위원 >

- 인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 필요. 그간 협동조합협의회에서 판로개척, 컨설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 ① 현재 전국에서 서울에만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는 상황이며 지역 내 컨설팅 및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송○○ 위원)

② 인천시의 협동조합 관련 예산 부족으로 협의회에서 사업 추진 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함. 협동조합이 있어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단계별 성장할 수 있는데 현재 지원구조는 반대인 것 같음(심○○ 위원)

③ 협동조합협의회에서 하던 각종 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옮길 계획. 다만 지원센터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 정부정책 기조는 지원기관의 분리가 아닌 통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 필요

< 서○○ 위원 >

○ 인천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원인 분석 필요. 또한 적은 인력과 자금,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내부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연계와 협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필요

☞ 예전에 비하면 인천의 사회적경제는 꽤 성장한 편. 그간 협의회, 부서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1기 분과위원회는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음(심○○ 간사)

< 심○○ 위원 >

○ 영국의 지역순환형 경제처럼 지역 내 조달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고 그런 기업을 창업하는 시스템을 연구, 나아가 조례 제정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남○○ 위원 >

○ 10여년이 지난 지금 인천의 사회적경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등을 연구 분석해서 인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연구용역 필요

□ 향후 계획

○ 제2기 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 제2차 회의 개최 : '21. 5월중